

성명	이윤지	수험기간	2023.04.~2024.07.
학교	서울대학교	전공	생명과학
키워드	최연소 생동차		

## 들어가며

###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번 61기 변리사시험 합격자 이윤지입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최연소 생동차로 합격하게 되었는데, 작게나마 저의 공부 계획과 방법이 수험생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합격수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 【변리사 시험 진입 계기】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대외 활동이나 연구 실습같은 학업 이외의 활동에 크게 참여하지 않은 탓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겨울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마침 어머니께서 변리사 시험 진입을 권해주셨고, 항상 진로에 있어서는 생명과학 전공을 꼭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저에게 변리사가 매력적인 직업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민법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고, 처음 배우는 법과목 공부가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져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해보고자 결심했습니다.

## 1차 공부

### 【민법】

#### ☑ 점수: 95점

#### ☑ 첫 시작

민법은 2022년 1월부터, 가장 먼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 이전 강의 내용을 훑어보는 방식으로 복습하였습니다.

#### ☑ 회독 시작 시기

강의를 모두 수강한 후, 한 학기동안 학교를 다니느라 변리사 시험 공부는 전혀 하지 못한 채로 6개월이 지나고, 여름방학부터는 산업재산권법 강의를 듣기 시작하여, 틈틈히 민법 기본서 회독을 하곤 했습니다.

#### ☑ 객관식 문제 풀이 및 회독

10월부터는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 문제풀이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 회독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식 문제를 풀어 최대한 회독한 내용이 기억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파이널까지 점점 속도를 올려나가며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모두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약 4일동안 기본서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산업재산권법】

### ☑ 점수: 92.5점

#### ☑ 특허법

강의는 온라인으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순으로 수강하였습니다.

특허법은 기본서보다 조문집과 판례집 위주로 회독을 하였고, 판례집의 경우 핵심 결론만 눈에 익도록 하고 자세한 판례는 모두 스킵하였습니다. 중요하거나 잘 외워지지 않는 판례는 조문집에서 관련 조문 옆에 적어두어, 파이널 기간 동안은 조문집을 회독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 ☑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기본서로 회독을 하였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세 과목 모두 회독을 진행하며 함께 객관식 문제집도 풀었습니다.

#### ☑ 비교표 작성

산업재산권법 세 과목 중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내용들이 많아 헷갈렸었는데, 이 부분들은 따로 비교 표를 제작하여 차이점을 확실히 기억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 【자연과학개론】

### ☑ 점수: 85점

#### ☑ 물리

물리는 독학을 진행하다가 문제풀이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선 기출을 포함하고 있는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 ☑ 화학

화학은 베이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여 독학으로 이론 공부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이 등장하면 해당 부분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하였습니다.

#### ☑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제 전공이어서, 기본서를 혼자 회독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 ☑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박준희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었는데, 처음엔 강의 진도에 따라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선 회독을 진행하며, 기본서 뒷부분에 있던 문제들을 반복하면서 풀었습니다. 회독을 진행하며 박준희 강사님의 필기노트에 더 기억해야 할 기본서 내용을 추가하여 파이널 노트를 제작하였고, 덕분에 시험 직전에는 1회독의 시간을 상당히 줄여 많은 내용이 암기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 ☑ 각 과목 별 할당 시간 및 순서

문제풀이 순서는 생명과학-지구과학-물리-화학 순서로 진행하였고, 물리와 화학에서의 시간 확보를 위해 앞 두 과목은 10분 안에 모두 풀이를 마치려고 했고,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는 적어도 15분 안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 【수험생활】

### ☑ 공부 장소

1차 기간 동안에는 집 주변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2023년 2학기를 6학점 뿐이지만, 학기를 병행하긴 하여 겨울방학 이전에는 공부 시간을 그리 많이 확보하진 않았으나, 겨울방학(12월 중순) 부터는 적어도 8시간 이상은 공부하려 했습니다. 파이널 때 회독을 반복하며 이전에 비해 실력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시험 두 달쯤 전부터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 모의고사

학원에서 열리는 모의고사를 본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보니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거나, 실전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잘 되질 않았었는데, 모의고사를 보며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자연과학에서 풀이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기타】

1. 최종적으로 평균 90.83점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 1차 시험기간 동안 2차 공부는 전혀 하지 못 했는데, 1차 공부의 완성도를 더 높여 안정적인 1차 점수를 받은 것이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큰 고민하지 않고 2023년 1학기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었고, 2차 공부에 완전히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 2차 공부

## 【민사소송법】

### ☑ 점수: 64점

### ☑ 전반적인 계획

1차 기간 동안 민사소송법 공부를 미리 해두지 못 했기 때문에, 1차 시험 이후 일주일 간 휴식을 취한 뒤 기본강의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창한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랐고, 3월 기본강의, 4월 사례강의, 5월 기초GS, 6월 실전GS 순으로 수강하였습니다.

### ☑ 3-4월: 기본강의, 사례강의 온라인 수강

3, 4월 동안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였는데, 이해만 하는 데에도 벅차다고 생각하여 수업 진도를 따르되 이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훑고 다시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 5월: 현장 기초GS 수강

5월 기초GS를 시작하면서부터 회독과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초GS에서 사전에 제공해주시는 논점을 참고하여, 현장GS에 출석하기 전 일주일 동안 해당 파트는 최대한 회독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시가 회독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시기라 완전히 진도를 따라잡진 못 했습니다. 그래도 늘 최선을 다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설, 목차 및 판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집에 가는 길과 학원에 가는 길에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암기하려고 노력하긴 했으나, 초반 GS를 쓸 땐 책을 떼고 판례조차 쓰기 어려웠고, 문제를 읽고 논점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

웠습니다. 예를 들어 기판력에서는 논점이 매우 다양한데, 해당 문제가 기판력에 관한 문제인지는 알겠으나, 세부 논점을 파악하려고 할 때에는 높은 확률로 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새로운 GS를 풀어나가고, 풀었던 GS를 복습하고, 기본서와 사례집 회독을 반복하니 이해도가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 ❑ 6월: 현장 실전GS B 수강

기초GS 후반부부터는 서서히 책을 댈 수 있었습니다. 물론 6월부터 논점이 주어지지 않은 실전GS B를 수강하면서 다시 책을 찾기 시작했으나, 회독수가 올라가며 점점 암기된 목차와 판례들이 늘어나 점점 책을 펼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 ❑ 민사소송법이 큰 벽으로 느껴지시는 동차생 분들이 계시다면...

동차생이시라면, GS를 써볼수록 논점 잡는 능력과 암기량이 늘어남을 인지하시고, 실력이 향상된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기초GS에 출석해서 답안지를 쓰려고 하는데, 논점 잡기는 커녕 기본서와 사례집을 모두 뒤져봐도 무엇을 써야할지 모르겠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자책하시기보다는 동차생이니 당연하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포기하지 않으시면 더 좋아질 길만 남은 것은 사실이니깐요!

또한, GS 등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연연해하실 필요 없고, 지금의 실력은 진짜 내 실력이 아니라 시험장에 들어가 직전의 순간이 진짜 내 실력으로 드러날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 암기방법

암기자료는 따로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기본서 회독을 진행하며 그 날 회독한 부분에서 외워야 할 문-학-판-검은 따로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최대한 그 날이 지나기 전에 암기를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시간, 집에 도착하여 잠들기 전 시간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워낙 암기할 내용이 많아 암기량이 그 날 회독 진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최선을 다하되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다음 날부터 밀린 부분부터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식을 파이널까지 진행하며, 도저히 외워지지 않는 부분의 사진들을 즐겨찾기 해두어 썬파이널 기간에 다시 암기하곤 했습니다.

## 【특허법】

### ❑ 점수: 44.66점

### ❑ 전반적인 계획

박형준 강사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3-4월 기초GS+, 5-6월 실전GS B를 수강하였습니다. 1차 시험 때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후반부에 가서 판례집을 자세히 읽어보기도 했었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 ❑ 3-4월: 기초GS+ 및 총알암기

기초GS+ 수업에서는 2차 특허법 기본 강의와 함께 기초GS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덕분에 답안지를 쓰는 두려움을 일찍부터 깨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때부터 총알 암기자료를 활용하여 매일 20개씩 암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2차시험 공부를 시작한 때부터 암기를 시작해서 초반에는 상당히 어려웠으나, 그 덕에 후반부에 민사소송법 암기에 열중할 수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생동차라면, 초반엔 민사소송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벅차므로 이 때 특허와 상표 암기를 집중적으로 해두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 ❑ 5-6월: 실전GS B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실전GS B를 수강하였는데, 어쩌면 민사소송법보다도 특허 GS를 쓰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암기는 잘 되어있으나 양조절이 어려웠고,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가 주어질 때 당황하곤 했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가 주어지니 전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서 회

독을 진행할 때 강의자료를 참고하여 기본서의 내용과 함께 변리사님께서 들어주신 실제 예시까지 숙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덕분에 GS를 수강하는 동안 매일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늘 어려웠고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GS 복습을 더욱 철저히 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의 경우, 기본서엔 없고 GS에만 나와있는 경우도 있었기에 그 부분은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하나의 폴더에 모아서, 파이널까지 더욱 더 자주 열어보고, 기본서의 내용만큼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이 기간 역시 총알 암기를 지속하였고, 기본서 회독을 진행하며 총알에는 없지만 더 외우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GS 내용과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한 폴더에 모아두고 암기 내용을 확대해나갔습니다.

## ☑ 7월~: 파이널

기본서 회독과 함께 모든 GS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물론, 기초GS까지 포함하면 양이 많았기에 특히나 바로 목차를 못 잡거나 외워지지 않는 문제들을 GS 1회독 때 표시하여 시험 직전에는 회독해야할 양을 줄여나갔습니다.

## ☑ 결론

특허법 점수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수라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 【상표법】

### ☑ 전반적인 계획

상표법은 기본강의, 기초GS, 실전GS 순으로 수강하였습니다. 1차 시험에서 상표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2차 시험의 경우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상표 기본강의는 3월 중순부터 수강하기 시작하여, 이후 기초GS와 실전GS를 순차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 ☑ 기초 GS 및 실전GS

상표법의 경우, 민사소송법이나 특허법에 비해 답안 작성에 있어 장벽이 그리 크지 않은 과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암기가 충분히 이루어져 책을 떼고 기초GS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민사소송법이나 특허법에 비하여 답안작성 및 암기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기초GS는 혼자서 인강을 통해 수강하며 복습을 진행할 때에 다시 한 번 중요 판례는 다시 직접 써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인강을 수강하다보니 몰입도가 떨어졌었는데, 직접 판례 문구를 다시 써보며 복습하는 기회가 암기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전 GS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답안작성 스테디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는데, 제 답안지의 가독성 및 목차 구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데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스테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 아님에도, 답안작성 스테디는 한 번쯤은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분자생물학】

선택과목으로는 분자생물학을 택했습니다. 동차인만큼 암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이나 저작권법을 고르는 선택지를 고려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동차이기 때문에 법이 아닌 과학 과목을 더하는 것이 공부의 효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과학 과목과 달리 암기량이 많은 분자생물학인 만큼 암기의 부담감을 덜기에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만, 법 과목을 공부하느라 지친 머리에 새로운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시

에, 정말로 변리사가 될 수 있다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생각에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암기량은 상당히 때문에 암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그리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이라도 4번째 법 과목을 공부하기보다 아예 분야가 다른 과학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선호도에 따라 선택과목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안지】

### ☑ 가독성 및 글씨

글씨가 좋은 편이 아니라, 기초GS+를 쓰기 시작한 3월부터 어떤 식으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떤 펜이 가장 좋은 글씨를 만들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의 경우엔 사안의 내용이 길어질 때 따로 목차를 잡고, 모든 과목에서 키워드와 결론에 밑줄을 쳐서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답안작성을 일찍부터 시작하며 고민한 덕분에 시험 준비 후반부에 답안지 작성에 관한 고민을 덜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글씨의 경우 필속은 빠른 편이나 대충 쓰는 습관이 있어 채점 시에 가독성 점수가 낮게 나오곤 했습니다. 이 점은 끝까지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 했으나, 마지막 문제의 답변을 쓸 때까지도 계속해서 글씨를 신경쓰자고 되뇌이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잉크펜이 아닌 제트스트림 볼펜을 사용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 ☑ 목차

사실 논점 잡거나 암기만 하더라도 해야할 공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목차에 대해서 크게 연구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GS에서 강사님들의 모범답안을 참고하여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수험생활】

### ☑ 가장 큰 고비(6월) 및 마음가짐

처음 1차 시험을 안정적으로 붙었던 덕분에,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2차 시험 공부는 4월까지 참 좋았습니다. 새로 배우는 민사소송법 내용도 흥미로웠고, 초반에는 암기를 덜한 탓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5월부터 민사소송법 기본서 및 사례집 회독을 시작하고, 6월에 들어 2회독을 하는데 완전히 초면과 같은 내용들이 수두룩하여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때, 절대로 이번 시험은 합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부할 의욕이 잘 나질 않았는데 이런 시기는 동차생이라면 꼭 한 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동차 합격생들의 많은 수기를 읽어보곤 했는데, 대부분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며 공부하셨다 하여, 그런 의지를 왜 나는 가지지 못할까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때 포기하지 않고, 마음가짐을 달리하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해보고서 2차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온 기득이 되는 것과, 동차니까 어차피 합격하지 못한다며 연습게임처럼 설렁설렁 공부하고 시험장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득이 된다면 아는 내용은 많아져도 지금보다 부담감은 몇 배가 될텐데, 그 때 최선을 다한 실전 경험을 동차 때 겪어볼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지금은 아는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가벼운 마음만큼은 1년 뒤에 기득이 된 나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붙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실전 경험을 만들어보리라고 다짐을 하니, 마음이 편해지며 다시 공부할 의욕이 생겼습니다. 혹시 너무 큰 부담감이 느껴지거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러한 마음가짐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 공부 장소

초반엔 민사소송법 인강이 대부분의 공부시간을 차지하여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인강을 듣다보니 목표로 하는 공부시간을 채우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복습과 회독의 시간에 들어서니 집중력이 많이 깨진다고 판단하여 집 주변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기간이 조금은 길어지다보니 원래 다니던 스터디카페에서도 집중력이 깨지고, 자주 집에 들어가서 남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집과 멀리 떨어져 버스를 타고 가야 할 거리의 스터디카페로 공부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가 새로워지니 집중력도 좋아지고, 지루한 마음도 덜 들고, 버스로 오고가는 시간에 암기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겨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 ❑ 혼자 공부 v.s. 스터디

평소에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여 스터디는 온라인GS를 수강했을 때의 답안작성 스터디를 제외하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스터디를 하시는 것 같고, 나 혼자 너무 정보가 없이 공부하고 있지는 않을까 마음 한 켠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사후적 고찰로써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충분히 집중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안작성 스터디는 꼭 한 번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GS를 수강할 경우 혼자서 2시간동안 답안을 써내려가는 집중력을 만들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분들이 해주시는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보다 남이 내 글씨를 읽었을 때 가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기도 하고, 목차의 경우에도 내 머리 속에서는 논리적일지는 몰라도 이를 구상하지 않은 남이 보았을 때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터디는 자유지만, 답안 작성 스터디는 추천입니다.

## 【기타】

### ❑ 순공시간

3월부터 계속 9시간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5월부터는 목표를 10시간으로 잡고 공부했습니다. 확실히 휴대폰 어플이나 타이머를 이용하여 공부시간을 재는 것이 공부량을 늘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유튜브 등으로 시간이 크게 낭비됨을 느껴 모든 알고리즘을 삭제하고 지냈는데 이것 역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 휴식

휴식은 일주일에 한 번 가졌습니다. 3,4월에는 일요일 GS가 끝난 뒤 쭉 휴식을 취했고, 5월부터는 일주일 중 원하는 요일의 반나절 동안 쉬었습니다. 반나절 휴식은 7월 첫째주까지 지속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은 친구를 만나곤 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와 대화하다보면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도 하고, 그 시간만큼은 공부에서 벗어나 완전히 휴식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마치며

공부를 하는 동안, 내가 과연 합격수기를 작성하면 무슨 말을 쓸까 상상하면서도 헛된 꿈 꾸지 말자며 바로 생각을 지워버리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합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6월까지의 저였고, 고비를 극복하고 근거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합격 확률을 0에서 5%까지는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이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의 실수와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당황하여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음에 만족하자고 생각했던 것이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던 시험지는 펼쳐보지도 않았었는데, 이러한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과분하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행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라도 행운은 찾아오니, 찾아온 행운을 꼭 잡을 수 있게 대비해두심이 좋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가족들, 친구들, 스터디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합격수기를 읽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을 응원합니다. 모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